

 한국농어촌공사	보 도 자 료 Press Release		농어촌  그린기치 ESG 2030
보도일시	2022. 8. 8(월) 10:00	배포일시	2022. 8. 8(월) 10:00
담당부서	총무인사처 총무부	책임자	부장 김순도(061-338-6041)
		담당자	대리 강효선(061-338-6056)

농어촌공사 『빛가람 미래농업 인재육성 과정 4기』 운영

- 광주·전남지역 대학생 대상으로 농업분야 진로탐색 및 역량강화 기회제공 -
- 농업분야 공공기관 상생협의회와 지역대학 협력해 미래 농업 인재 육성 -

한국농어촌공사(사장 이병호)를 비롯한 농업분야 공공기관 상생·협력 협의회*(이하 농업기관 상생협의회)는 8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광주·전남 지역 대학생 80여 명을 대상으로 농업분야 오픈캠퍼스 『빛가람 미래농업 인재육성 과정 4기』를 운영한다.

* 농업분야 공공기관 상생·협력 협의회 :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업분야 5개 기관(한국농어촌공사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, 한국농촌경제연구원,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, 전남농업기술원)과 나주시가 농어업 및 이전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구성한 협의회

『빛가람 미래농업 인재육성 과정』은 2019년 1기 운영을 시작으로 농업 관련 기관 및 지자체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광주·전남지역 대학생들에게 농업 분야 창업 및 농업공공기관 취업 관련 실무중심 교육을 제공해오고 있다.

전남대, 조선대, 순천대, 동신대, 목포대에서 각각 선발된 참여 대학생들은 과정 수료 후 최대 2학점의 학점과 수료증을 부여받고, 조별 과제 및 개인별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표창과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다.

프로그램은 진로탐색 및 역량강화의 기회 제공을 위해 기관별 주요사업 및 농정특강, 현장특강 등 농업분야 직무 교육과 함께 각종 취업 관련 특강으로 구성됐다.

특히, 올해는 기존 수료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취업 특강 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하고 취업과 현장으로 각각 1일 테마를 구성해 교육생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.

공사를 비롯한 농업기관 상생협의회는 수료자들의 만족도*가 매년 상승하며 지역 대학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이끌어 온 만큼 보다 많은 지역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 및 교육 구성 관련 개선에 힘을 계획이다.

* 2020년) 4.5점(5점 만점) → 2021년) 4.6점(5점 만점)

강경학 농지관리이사는 “빛가람 미래농업 인재육성 과정은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해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”이라며 “앞으로도 농업과 지역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며,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아가겠다”고 말했다.